

2007년 등급판정결과 돼지부문 우수상

선진농장 - 장재칠 농가

제주지역본부 본부장 권기백



선진농장 장재칠 대표

'선진농장'은 푸른 바다가 훤히 내려다보이는 제주도 애월읍 봉성리 한라산 북서쪽 기슭에 위치하고 있는 농장이다.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가족건강 농장으로 2007년도에는 등급판정결과 영예의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사육규모 1천500여 두의 아담한 선진농장은 지난해 하반기 등급판정결과, 육질 1등급 이상 출현율 85%, 규격등급 B등급 이상 출현율 87%로 축산업의 국내·외 환경이 변화하는 가운데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유산균 돼지고기 생산

선진농장에서는 제주산 돼지고기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웰빙시대의 소비자층을 겨냥하기 위해 미생물 생산업체인 (주)지티글로벌 및 일본의 (주)스즈키 농원과 유산균 공급 및 돼지고기 유통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2007년 12월)했다. 또한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 양돈장으로 지정된 선진농장은 최근 농장 내에 유산균 배양시설을 갖추고 '제주 선진 유산균 포크'라는 상표등록을 함으로서 본격적인 유산균 돼지 생산에 들어갔다. 돼지에게 유산균을 먹이게 되면 자돈의 폐사율이 감소하고 고기의 질이 좋아짐은 물론 돼지우리 내 축산분뇨 악취도 크게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이에 스즈키 농원 측은 대일 수출만 재개된다면 부위를 구별하지 않고 전량 수입할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앞으로의 포부

무역협상, 사료값 인상, 돼지가격 하락 등 국내·외 축산환경은 변화무쌍하다. 하루빨리 대일수출 등 돼지고기 수출이 다시 시작되고, 돼지고기 소비가 촉진돼 양돈농가에게 희망을 불어넣어 주는 등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는 상생의 사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